어명소 차관, "지상조업 인력 확충으로 국제선 회복 뒷받침해야"

- 4일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 현장 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**4월 4일**(화) **인천공항 지상조업 현장**을 찾아 인력충원 현황을 점검하고, **국제선 회복이 속도감 있게 진행**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**인천공항공사 및 업계**에 **지상조업 인력 확충** 등 **총력 대응을 당부**하였다.

□ 어 차관은 "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**내수활성화 지원**을 위해 올해 9월까지 **국제선 운항**을 코로나-19 이전의 **90% 가까이 회복**할 계획으로, 지난해 영국 히스로 공항처럼 **지상조업 인력부족**으로 발생한 **수하물 대란**이나 **국제선 운항에 차질**이 있어서는 안 된다"라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지상조업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하는 **간담회를 개최**하여 **지상조업사**의 경우에는 "항공사 및 2차 협력사와 적극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 **처우개선, 적극적 구인**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철 성수기 이전까지 **충분한 인력을 확보**할 수 있도록 **총력**을 기울여 줄 것"을 당부하는 한편,

○ **인천공항공사**에는 "업체에서 인력채용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는 지상조업 현장근무자의 **새벽, 심야시간대 출퇴근 문제**를 해결할 수 있도록 **실질적인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**하고, **휴게실 확대, 조업장비 개선** 등 **근무환경 개선**도 **조속히 추진**할 것"을 지시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**항공기 운항 증가**와 대규모 **신규인력 채용** 등으로 인해 **항공안전 및 보안**에 **빈틈**이 생기지 않도록 **신규근무자 교육, 사전 시설·장비점검** 등 **안전관리에도 만전**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23. 4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